

## 15. 여왕 스이코와 쇼오토쿠 태자 (593-641)

### 15. 推古, 舒明

推古天皇 即位前紀 豐御食炊屋姬  
天皇 天國排開廣庭天皇中女也 橘  
豐日天皇同母妹也 幼曰額田部皇女  
姿色端麗 進止軌制 年十八歲 立爲  
淳中倉太玉敷天皇之皇后 三十四歲  
淳中倉太珠敷天皇崩 三十九歲 當  
于泊瀨部天皇五年十一月 天皇爲大  
臣馬子宿禰見殺 嗣位旣空 群臣請  
淳中倉太珠敷天皇之皇后額田部皇  
女 以將令踐祚 ... 皇后即天皇位於  
豐浦宮 下173

### (1) 최초의 여왕

[19대] 스이코 여왕은, [15대] 킨메이 왕의 딸이며, [17대] 요오메이 왕의 친 여동생이다. 소가 씨족의 이나메 대신의 외손녀이고, 우마꼬 대신은 그녀의 외삼촌이다. 그녀가 어렸을 때에는 누카타베 왕녀라고 불렸다. 자색이 단정하고 아름다웠으며, 행동거지는 절도가 있었다. 18세 때에, 이복 오라버니인 [16대왕] 비다쓰의 왕후가 되었다.

그녀가 34세 때, 비다쓰가 서거하고 친오빠인 요오메이가 [17대] 왕위에 올랐다. 요오메이는 재위 1년 8개월 만에 병사하고, 이복동생인 스순이 왕위를 계승했다. 그녀 나이 39세인 592년 11월, [18대] 스순 왕이 외삼촌인 우마꼬 대신에 의해 살해되었다. 우마꼬와 군신들은, 비다쓰의 왕후인 누카타베 왕녀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청했다.

살해된 스순 왕의 모친과 누카타베 왕녀의 모친은 친자매간의 왕비들이며, 모두 이나메 대신의 딸들이었고, 우마꼬의 누이 동생들이었다. 스이코는 592년 12월, (오늘날의 나라현 타카이치 군의 아스카 촌에 위치했던) 야마토의 토유라 궁에서 즉위했다. 야마토 왕조 최초의 여왕인 것이다.

중국에서 측천무후(625-705년)가, 690-705년 기간 중, 나라이름을 주라 부르면서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유학보다도 불교와 도교가 성했던 사실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 신라의 선덕여왕(632-647년), 진덕여왕(647-654년), 진성여왕(887-897년) 등의 존재도 같은 시각으로 설명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야마토 왕국에서는 스이코 여왕(593-628년)을 시작으로 해서, 코오교쿠(642-645년), 사이메이(655-661년), 지토오(687-697년), 겐메이(707-715년), 겐쇼오(715-724년), 코오겐(749-758년), 쇼오토쿠(764-770년) 등의 여왕들이 등장한다.

## (2) 모두 백제 옷을 입고

스이코 원년인 593년 정월달, 불사리를 호오꼬오지 절 기둥 초석 가운데에 안치했다. 후소오략키 스이코 원년 조에 의하면, 소가 씨족의 우마꼬 대신이 (모노노베 씨족의 모리야 대련과 벌린 싸움터에서 한 서약에 따라), 아스카 땅에 호오꼬오지를 축조키로 했고, 스이코 원년 정월, 사찰의 기둥을 세우는 날, 우마꼬 대신이 10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두 백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를 보고 구경꾼들이 모두 즐거워했으며(嶋大臣并百餘人 皆着百濟服 觀者悉悅), 마침내 불사리가 절 기둥 초석 가운데 안치되었다고 한다.

후소오략키(扶桑略記)는 엔레키지(延曆寺)의 승려 코오엔(皇圓)이 편찬한 편년체의 역사책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호오꼬오지는 불사리를 안치한 날로부터 만 4년 후인, 596년 겨울 11월에 완공이 되었다.

## (3) 쇼오토쿠 태자

593년 4월, 스이코 여왕은 자신의 친 오라버니인 요오메이 왕의 아들 우마야토 왕자를 태자로 삼고, 섭정으로서 정사를 총괄하게 했다. 야마토 왕조 최초의 여왕은 상징적인 존재이었고, 조카인 우마야토 왕자가 조정의 모든 일을 처리한 것이다.

훗날 쇼오토쿠(聖德) 태자라고 부르게 된 우마야토 왕자의 모친은, 산달이 임박했을 때, 궁내의 여러 관서를 감찰했었다. 그런데 그녀는, 말을 기르는 우마쓰카사(馬官)에 도착했을 때, 우마야토 (즉 마구간 문) 앞에서 갑자기 그를 낳게 되었다고 한다. 쇼오토쿠 태자(574-621년)는 출생 직후에 말을 했으며, 성현의 지혜가 있어, 장성하자 열 명의 송사를 한꺼번에 듣고 즉시 정확하게 판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앞날에 생길 일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고구려 승려 혜자에게 불교를 배우고, 카쿠카 박사에게서 유교를 배웠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내교(불교)와 외전(불경이 아닌 다

推古天皇 元年春正月 以佛舍利 置于法興寺刹柱礎中...建刹柱 下173

扶桑略記 第三 推古天皇 欽明天皇 中女 母稻目大臣女蘇我小姊君姬也 敏達天皇之后 號炊屋姬皇后 即此天皇也 ... 都大和國高市郡小治田宮 一云 豐浦宮 ... 元年正月 蘇我大臣馬子宿禰依合戰願 於飛鳥地建法興寺 立刹柱日 嶋大臣并百餘人 皆着百濟服 觀者悉悅 以佛舍利籠置刹柱礎中 495

推古天皇 元年夏四月 立廐戶豐聰耳皇子 爲皇太子 仍錄攝政以萬機悉委焉 橘豐日天皇第二子也 母皇后曰穴穗部間人皇女 皇后懷妊開胎之日 巡行禁中 監察諸司 至于馬官乃當廐戶 而不老忽產之 生而能言有聖智 及壯 一聞十人訴 以勿失能辨 兼知未然 且習內教於高麗僧慧慈 學外典於博士覺努 並悉達矣 父天皇愛之 令居宮南上殿 故稱其名謂上宮廐戶豐聰耳太子 秋九月 改葬橘豐日天皇於河內磯長陵 是歲始造四天王寺於難波荒陵 下173-175

推古天皇 二年春二月 詔皇太子及大臣 令興隆三寶 是時諸臣連等 各爲君親之恩 競造佛舍 卽是謂寺焉 下17

推古天皇 三年夏四月 沈水漂着於淡路嶋 其大一圍 嶋人不知沈水 以交薪燒於竈 其烟氣遠薰 則異以獻之 五月 高麗僧慧慈歸化 則皇太子師之 是歲 百濟僧慧聰來之 此兩僧弘演佛教 並爲三寶之棟梁 秋七月 將軍等至自筑紫 下175

推古天皇 四年冬十一月 法興寺造竟 則以大臣男善德臣拜寺司 是日慧慈慧聰 二僧始住於法興寺 下175  
推古天皇 五年夏四月 百濟王遣王子阿佐朝貢 冬十一月 遣吉士磐金於新羅 下175

推古天皇 六年夏四月 難波吉士磐金 至自新羅 而獻鵲二隻 乃俾養於難波社因以巢枝而產之 秋八月 新羅貢孔雀一隻 冬十月 越國獻白鹿一頭 下175-177

른 서적)에 통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4) 불교의 융성

593년, 나니하에 시텐노오지(四天王寺)를 짓기 시작했다. 현재 오오사카 시의 천왕사 구에 있는 절이다. 594년, 스이코 여왕은 태자와 대신에게 불교를 크게 융성토록 하라고 명했다. 그러자 오미와 무라지 등은, 임금님과 부모님에 대한 보은을 위해, 경쟁적으로 절을 지었다.

고대 한국에서는 절을 “덜” 이라고 불렀고, 야마토에서는 “데라” 라고 불렀다. 일본열도에 상륙한 한반도의 말이 토착 아이누 혹은 말라요-폴리네시아인 말의 영향을 받아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595년 4월, 아하지 섬에 커다란 향나무 토막 한 개가 떠내려 왔다. 섬사람들은 그런 향나무를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땀감 장작들과 섞어서 밥을 지을 때 사용했다. 그러자 그 연기가 멀리까지 향내를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타다 남은 향나무 토막을 여왕께 헌상 했다.

595년 5월, 고구려 승려 혜자가 귀화하여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또 백제 승려 혜총이 왔다(來之). 이 두 승려는 불교를 널리 가르치고, 부처, 불법, 승려를 의미하는 삼보의 동량이 되었다. 고구려 승려는 “귀화” 를 했다하고, 백제 승려는 그냥 “왔다” 고 기록을 한다.

596년 11월, 호오꼬오지 건물이 완성되었다. 우마꼬 대신은 아들 하나를 테라 쓰카사(寺司)에 임명하였다. 그 날부터 혜자와 혜총은 호오꼬오지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597년 4월, 백제 위덕왕은 아좌 왕자를 보냈다. 그 해 11월,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 (5) 한반도와의 관계

598년 4월, 신라에 갔던 사신이 돌아와 까치 한 쌍을 헌상 했다. 나니하의 신사에서 키웠더니 나무 가지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았다. 8월, 신라는 공작 한 쌍을 보냈다. 10월 코시 나라(越國)가 흰 사슴 한 마리를 헌상 했다.

삼국사기를 본다. 598년 가을 9월, 위덕왕(554-598년)은 장사(長史) 왕변나를 수 나라로 보내 조공을 했다. 백제 28대 혜왕(598-599년)은 위덕왕의 동생이었고, 29대 법왕(599-600년)은 혜왕의 장자였다. 위덕왕의 재위기간이 45년에 달하는데 반해, 위덕왕의 동생과 조카인 혜왕과 법왕은 재위기간이 각각 2년도 채 안되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모두 위덕왕이 죽을 때까지 45년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상당히 늙게 되어 왕위에 올랐던 것 같다.

599년 4월, 지진 때문에 집들이 모두 파손되었다. 사방에 령을 내려, 지진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9월, 백제는 낙타 한 필, 나귀 한 필, 양 두 마리, 흰색 꿩 한 마리 등을 보냈다.

600년 2월, [가야 지역에서 신라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스이코 여왕은 가야 사람들을 도우려고, 사카히베의 (성명미상) 오미를 대장군으로 삼고, 호즈미 씨족의(성명미상) 오미를 부장군으로 삼아, 만여 명의 군대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게 했다. 이들은 다다라, 소나라, 불지훈, 위타, 남가라, 아라 등 여섯 개의 성을 빼앗았다. 신라가 화해를 청했다. 여왕은 신라와 임나 지역에 사신을 보내 상황을 점검케 한 다음, 장군들을 소환했다. 야마토 장군들이 돌아가자, 신라는 곧바로 가야 사람들의 반란을 다시 진압해 버렸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본다. 법왕은 600년 정월에 왕흥사를 세우고 승려 30명을 두었다. 29대 법왕이 즉위한 바로 다음해에 돌아가자, 아들 장이 왕위를 이어 30대 무왕이 되었다. 백제를 42년 간 다스린 무왕(600-641년)은, 풍모가 뛰어나고, 성격이 호걸스러웠다.

601년 2월, 쇼오토쿠 태자는 이카루가에 궁실을 짓기 시작했다. 3월, 스이코 여왕은 고구려와 백제에 사람을 보

三國史記 卷 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威德王 四十五年 秋九月 王使長史王辯那入隋朝獻...惠王 諱季明王第二子... 法王 諱宣 惠王之長子 三下72-73

推古天皇 七年夏四月 地動舍屋悉破 則令四方 俾祭地震神 秋九月 百濟貢駱駝一匹 驢一匹 羊二頭 白雉一隻 下177

推古天皇 八年春二月 新羅與任那相攻 天皇欲救任那 是歲 命境部臣爲大將軍 以穗積臣爲副將軍 並闕名 則將萬餘衆 爲任那擊新羅... 割多多羅 素奈羅 弗知鬼 委陀 南迦羅 阿羅羅六城 以請服... 爰天皇更遣難波吉師神於新羅 復遣難波吉士木蓮子於任那 並檢校事狀 爰新羅任那 仍奏表之曰... 自今以後 不有相攻...則遣使以召還將軍 將軍等至自新羅 卽新羅亦侵任那 下177

三國史記 卷 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法王 二年 春正月 創王興寺 度僧三十人... 武王 諱璋 法王之子 風儀英偉 志氣豪傑 法王卽位翌年 薨 子嗣位 三73

推古天皇 九年春二月 皇太子初興宮室于斑鳩 三月 遣大伴連嚙于高麗 遣坂本臣糠手于百濟 以詔之曰 急救任那 夏五月天皇居于耳梨行宮...秋九月 新羅之間諜者迦摩多到對馬 則捕以貢之 流上野 冬十一月 議攻新羅 下177-179

推古天皇 十年春二月 來目皇子爲擊新羅將軍 授諸神部及國造伴造等

并軍衆二萬五千人 夏四月 將軍來  
目皇子 到于筑紫 乃進屯嶋郡 而聚  
船舶運軍糧 六月 大伴連嚙 坂本臣  
糠手 共至自百濟 是時 來目皇子  
臥病以不果征討 冬十月 百濟僧觀  
勒來之 仍貢曆本及天文地理書 并  
遁甲方術之書也 是時 選書生三四  
人 以俾學習於觀勒矣 陽胡史祖玉  
陣習曆法 大友村主高聰學天文遁甲  
山背臣日立學方術 皆學以成業 潤  
十月 高麗僧僧隆 雲聰 共來歸 下  
179

#### <15-1>

쇼오토쿠 태자가 직접 만들었다는 헌법 17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는, 화목함을 귀하게 생각하라. 제2조는, 부처, 불법, 승 등 세 가지 보물을 독실하게 공경하라. 제3조는, 왕의 말에 신하는 반드시 승복하고 따라라. 4조는, 예의를 기본으로 하라. 제5조는, 물욕을 버리고, 소송을 공명정대하게 가려라. 제6조는,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라. 제7조는, 말은바 임무를 처리하되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 제8조는, 벼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토록 하라. 제9조는, 신의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하라. 제10조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 분노하지 말라. 제11조는, 공적과 과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합당한 상과 벌을 주어라. 제12조는, 왕의 신하인 국사와 국조는 백성들을 수탈하지 말라. 제13조는, 관리들은 자신이 맡은바 임무의 내용을 숙지하고,

내, 가야를 구원해 주라고 말을 전했다. 5월, 큰비가 와서 궁정이 물에 잠겼다. 여왕은 행궁에 거처를 했다. 9월, 신라의 간첩이 쓰시마 섬에 온 것을 체포해 수도로 올려 보냈다. 그 간첩을 유배시켰다. 여왕은 군신들과 신라에 대한 공격을 의논했다.

602년 2월, 쇼오토쿠 태자의 동생인 쿠메 왕자를 신라 공격 장군으로 삼고, 여러 카무토모(神部) 및 국조, 반조 등을 포함해서 군사 2만5천명을 왕자에게 주었다. 4월, 장군 쿠메 왕자는 쓰쿠시에 도착해, 선박을 모으고 군량을 운반했다. 6월, 쿠메 왕자가 병이 나서 정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602년 10월, 백제 승 관륵이 왔다(來之). 력본(曆本)과 천문지리서, 둔갑 방술서 등을 가지고 왔다. 서생 3, 4명을 선발하여 관륵 밑에서 력법, 천문, 둔갑, 신선의 술법인 방술 등을 배우게 했는데, 모두 학업에 성공을 했다. 윤달 10월, 고구려 승 승릉 과 운총이 귀화해 왔다(來歸).

일본서기는 여기서도, 고구려 승은 “귀화”를 했다고 하고, 백제 승은 그냥 “왔다”고 기록을 한다. 호무다가 백제로부터 건너와 야마토 왕국을 창건한지 200여년이 지난 시점의 기록이지만, 야마토 조정의 지배층은 백제를 타국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603년 2월, 쿠메 왕자가 쓰쿠시에서 죽었다고 역사(驛使)가 달려와 보고를 했다. 4월, 그의 형 타기마 왕자가 신라 정벌 장군으로 임명되었다. 7월, 타기마 왕자가 나니하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하지만 그를 수행하며 시중을 들던 처가 죽었기 때문에 되돌아오고 말았다.

#### (6) 헌법 17조

603년 11월, 쇼오토쿠 태자는 대신들에게 말 했다: “내가 존귀한 불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 불상을 받아서 모시고 공경을 할 것인가?” 그러자 하타 씨족의 미야쓰코(秦造)인 카하카쓰가 앞으로 나와, 자기가 모시겠다고 말

했다. 카하카쓰는 불상을 받아 가지고 절을 지었다.

그 해 12월, 처음으로 12계 관위(冠位) 제도를 시행하였다. 머리카락을 자루 같은 모양으로 머리 위에 모아서 묶은 다음 테두리를 돌렸다. 12개 각각의 계급마다, 정하여진 색깔의 얇은 비단을 그 테두리에 꿰매어 달도록 했다. 새해 정초에 만든, 머리에다 장식으로 꽃을 꽂았다.

관위제도란 머리에 쓰는 관의 종류에 의해 관료로서의 중앙 호족들의 신분질서를 정하는 것이다.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세습적인 우지-카바네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발탁하고 승진시키는 제도다.

604년 정월, 여러 신하들에게 관위를 내려 주었다. 그 해 4월, 쇼오토쿠 태자는 친히 헌법 17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헌법의 내용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헌법과는 거리가 멀다. 원광법사(圓光法師)가 말해 주었다는 신라 화랑의 세속 오계(世俗五戒) 모양, (신하들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1> 불계(佛戒)에는 보살10계(菩薩十戒)가 있다.

그 해 9월, 그림 그리는 스승 2명을 최초로 정했다.

## (7) 불교와 신도

605년 4월, 스이코 여왕은 태자, 대신, 왕자들 그리고 기타 군신들에게 조서를 내려, 모두 함께 부처님한테 맹세를 하고, 등과 자수(繡)로 6장 불상을 각각 한 개씩 만들게 하였다. 또 (7대 하츠세 왕 때 백제에서 도래하여 야마토 아야(東漢) 씨족이 관할토록 한) 쿠라쓰쿠리 씨족의 토리를 불상 만드는 책임자로 삼았다. 일본 고대씨족 인명사전은 쿠라쓰쿠리 씨족을, 백제에서 건너와, 6,7 세기에 야마토에서 크게 활약한 도래계 씨족이라고 소개한다.

고구려 영양왕은, 스이코 여왕이 불상을 만들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황금 3백 량을 보내왔다. 윤 7월, 태자는 왕자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명하여 히라오비(주름을 잡은 치마와 같은 옷)를 입도록 하였다. 10월부터 태자는 이카루가 궁

소홀히 하지 말라. 제14조는, 군신들은 질투를 하지 말라. 제15조는, 사심을 버리고 공무를 수행하라. 제16조는, 농번기에는 백성들에게 사역을 시키지 말라. 제17조는,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검토하면, 도리에 맞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推古天皇 十二年春正月 始賜冠位於諸臣 各有差 夏四月 皇太子親筆作憲法十七條 一曰 以和爲貴 無忤爲宗...二曰 篤敬三寶 三寶者佛法僧也...三曰 承詔必謹... 四曰 群卿百寮 以禮爲本...五曰 絕饗棄欲 明辨訴訟...六曰 懲惡勸善... 七曰 人各有任 掌宜不濫...八曰 群卿百寮 早朝晏退...九曰 信是義本 ...十曰 絕忿棄瞋 不怒人違... 十一曰 明察功過 賞罰必當... 十二曰 國司國造 勿斂百姓 國非二君 民無兩主 率土兆民 以王爲主 所任官司 皆是王臣 何敢與公 賦斂百姓 十三曰 諸任官者 同知職掌...十四曰 群臣百寮 無有嫉妬...十五曰 背私向公 是臣之道矣...十六曰...農桑之節 不可使民...十七曰 夫事不可獨斷 必與衆宜論... 故與衆相辨 辭則得理 秋九月...始定黃書畫師山背畫師 下181-187

推古天皇 十一年春二月 來目皇子薨於筑紫 仍驛使以奏上 ... 夏四月 更以來目皇子之兄當摩皇子 爲征新羅將軍 秋七月 當摩皇子 自難波發船 丙午 當摩皇子到播磨 時從妻舍人姬王薨於赤石... 乃當摩皇子返之 遂不征討...十一月 皇太子謂諸大夫

曰 我有尊佛像 誰得是像以恭拜 時  
秦造河勝進曰 臣拜之便受佛像 因  
以造蜂岡寺...十二月 始行冠位 大  
德 小德大仁 小仁 大禮 小禮 大信  
小信 大義 小義 大智小智 并十二  
階 並以當色純縫之 頂撮總如囊 而  
着緣焉 唯元日着髻花 髻花 此云  
于孺 下181

時聞圓光法師入隋回 ... 二人 ...  
願賜一言 以為終身之誡 光曰 佛教  
有菩薩戒 其別有十 若等為人臣子  
恐不能堪 今有世俗五戒 一曰 事君  
以忠 二曰 事親以孝 三曰 交友有  
信 四曰 臨戰無退 五曰 殺生有擇  
遺301

推古天皇 十二年 秋九月.. 始定黃  
書畫師山背畫師 下181-187

推古天皇 十三年夏四月 天皇詔皇  
太子大臣及諸王諸臣 共同發誓願  
以始造銅繡丈六佛像 各一軀 乃命  
鞍作鳥 為造佛之工 是時 高麗國大  
興王 聞日本國天皇造佛像 貢上黃  
金三百兩 潤七月 皇太子命諸王諸  
臣 俾着褶 冬十月皇太子居斑鳩宮  
下187

推古天皇 十四年夏四月 銅繡丈六  
佛像並造竟 是日也 丈六銅像坐於  
元興寺金堂 時佛像高於金堂戶 以  
不得納堂 於是 諸工人等議曰 破堂  
戶而納之 然鞍作鳥之秀工 不壞戶  
得入堂 即日 設齋 於是 會集人衆  
不可勝數 自是年初每寺 四月八日  
七月十五日設齋 五月 勅鞍作鳥曰  
朕欲興隆內典 方將建佛刹 肇求舍  
利 時汝祖父司馬達等 便獻舍利 又  
於國無僧尼 於是 汝父多須那 為禱

에 거주했다.

606년 4월, 동 및 자수의 6장 불상이 동시에 완성되었다. 동상은 간고오지(元興寺)의 금당에 안치하도록 했다. 그런데 불상이 금당의 문보다 높아서 당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공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한 다음, “금당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자”는 말까지 했으나, 토리의 기발한 시공 방법 덕분에, 문을 부수지 않고 불상을 당 안으로 들여놓을 수가 있었다. 그 날, 불공을 올렸는데, 불공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해부터 모든 절마다, 4월 8일과 7월 15일에 불공을 올리기 시작했다.

606년 5월, 여왕은 (쿠라쓰쿠리 씨족의) 토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 했다: “내가 불교를 융성 시키고 불교 사찰을 세우기 위해, 우선 사리를 구하였을 때, 너의 할아버지 다치토는 곧바로 사리를 헌상 해 주었다. 또 나라 안에 여승이 없었는데, 네 이모는 최초로 출가를 하여, 여승들의 인도자로서 배움을 닦고 석가의 가르침을 수행했다. 네 애비 타스나는 요오메이 왕을 위해 출가하여 불법을 공경했다. 이제 내가 6장 불상을 만들기 위해 불상의 도면을 구하자, 네가 바로 불상의 기본 설계를 헌상 했는데, 정말 내 마음에 들었다. 또 너는 법당의 문을 부수지 않고, 6장 불상을 법당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모두 네 공적이다.”

왕은 토리에게 다이닌의 관위를 내려 주고, 논 20정을 하사했다. 토리는 이 논을 재원으로, 여왕을 위해 코무가우지(金剛寺)를 지었다. 그 해 7월, 스이코 여왕은 태자를 청하여 승만경을 강의하도록 명했다. 설법은 3일 만에 끝났다. 그 해에 태자는 또 법화경을 왕궁에서 강의했다. 여왕은 크게 기뻐, 하리마의 논 100정을 태자에게 시주했고, 태자는 이를 이카루가 테라에 바쳤다.

607년 2월, 왕자와 공주들을 위해 미부 베를 정했다. 또 조서를 내려 말 했다: “우리의 선조인 역대 임금님들은,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 모든 천신과 지신들을 정성껏 모셨고, 산천에 두루 제사를 지내, 모든 신들의 힘이 하늘과 땅을 통하게 했다. 이 때문에 음양이 화합하고, 만물이 조화를 이루었다. 어찌 이제 와서 (불교를 믿는다고) 천신과 지신들

에 대한 제사를 태만하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군신들은 모두 마음속으로부터 정성을 다하여 천지의 신들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스이코 여왕과 대신은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천신과 지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불교와 신도의 공존공영 정책을 분명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 (7) 수나라와의 통교

607년 7월, 스이코 여왕은 (오노 씨족의 오미) 이모꼬를 수 나라에 보냈다. 쿠라쓰쿠리 씨족의 후쿠리를 오사(通事)로 삼아 통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한반도 왕국에 사신을 보낼 때 통역을 딸려 보냈다는 기록은 한군데도 없다. 그러나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수서 동이전에 의하면, 607년에 왜국이 사자를 보내 국서를 전했는데,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는데, 별고 없는지” 라는 등, 수 양제(604-618년)가 읽어보고 불쾌하게 생각해, “오랑캐의 글 내용이 무례한데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글을 받지 말도록 하라” 고 명 했다 한다.

607년 겨울, 야마토(倭) 땅에다 타케치(高市) 못 등, 저수지 네 개를 만들었다. 야마시로 땅에는 대규모의 운하를 팠다. 카후치 땅에도 저수지 두 개를 만들었다. 또 각 지역마다, 왕실 직할지인 미야케(屯倉)를 설치했다.

608년 4월, 이모꼬가 수나라 사신 일행과 함께, 백제를 거쳐서, 쓰쿠시로 돌아왔다. 사람을 보내 수 나라 사신 일행을 영접 해 오게 했다. 나니하의 고구려관 위쪽에 중국 사신을 위해 신관을 지었다.

608년 8월, 수나라 사신 일행이 아스카 왕경에 들어와 서신을 전했는데, 그 서신은 “황제가 왜왕에게 안부를 묻는다...” 라는 말로 시작했다. 9월, 수나라 사신 일행이 귀국 길에 올랐다. 스이코 여왕은 인사말을 전하는데 “동쪽의

豐日天皇出家 恭敬佛法 又汝姨嶋女 初出家 爲諸尼導者 以修行釋教 今朕爲造丈六佛 以求好佛像汝之所獻佛本 則合朕心 又造佛像既訖 不得入堂 諸工人不能計 以將破堂戶 然汝不破戶而得入 此皆汝之功也 卽賜大仁位 因以給近江國坂田郡水田二十町焉 烏以此田 爲天皇作金剛寺 是今謂南淵坂田尼寺 秋七月 天皇請皇太子 令講勝鬘經 三日說竟之 是歲 皇太子亦講法華經於岡本宮 天皇大喜之 播磨國水田百町 施于皇太子 因以納于斑鳩寺 下 187-189

推古天皇 十五年春二月 定壬生部... 詔曰 朕聞之 曩者我皇祖天皇等宰世也 跼天踏地 敦禮神祇 周祠山川 幽通乾坤 是以 陰陽開和 造化共調 今當朕世 祭祀神祇 豈有怠乎 故群臣共爲竭心 宜拜神祇... 皇太子及大臣 率百寮以祭拜神祇 秋七月 大禮小野臣妹子遣於大唐 以鞍作福利爲通事 是歲冬 於倭國 作高市池藤原池肩岡池菅原池 山背國掘大溝於粟隈 且河內國 作戶刈池依網池 亦每國置屯倉 下189

隋書 卷八十一 東夷傳 大業三年 其王多利思比孤遣使朝貢 使者曰 聞海西菩薩天子重興佛法 故遣朝拜兼沙門數十人來學佛法 其國書曰 日出處天子致書日沒處天子無恙 云云 帝覽之不悅謂鴻臚卿曰 蠻夷書有無禮者 勿復以聞 明年 上遣文林郎裴清使於倭國 度百濟 行至... 推古天皇 十六年夏四月 小野臣妹子 至自大唐... 卽大唐使人裴世清下客十二人 從妹子臣 至於筑紫 遣難波吉士雄成 召大唐客裴世清等 爲



唐客更造新館於難波高麗館之上 ... 秋八月 唐客入京...親持書...其書曰 皇帝聞倭皇...九月 唐客裴世清罷歸 則復以小野臣妹子臣爲大使 吉士雄 成爲小使 福利爲通事 副于唐客而 遣之 爰天皇聘唐帝 其辭曰 東天皇 敬白西皇帝...是時 遣於唐國學生倭 漢直福因 奈羅譯語惠明 高向漢人 玄理 新漢人大國 學問僧新漢人日 文 南淵漢人請安 志賀漢人惠隱 新 漢人廣濟等 并八人也 是歲 新羅人 多化來 下189-193

三國史記 卷 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九年 春三月 遣使入隋 朝貢 隋文林郎裴清奉使倭國 經我 國南路 三73

推古天皇 十七年夏四月 筑紫大宰 奏上言 百濟僧道欣 惠彌爲首 一十 人 俗七十五人 泊于肥後國葦北 津 ... 對曰 百濟王命以遣於吳國 其國有亂不得入 更返於本鄉 忽逢 暴風 漂蕩海中 然有大幸 而泊于聖 帝邊境 ...以道人等十一 皆請之欲 留 ... 因令住元興寺 秋九月 小野 臣妹子等 至自大唐 唯通使福利不 來 下193-195

推古天皇 十八年春三月 高麗王貢 上僧曇徽法定 曇徽知五經 且能作 彩色及紙墨 并造碾磑 蓋造碾磑 始 于是時歟 下195

천황이 삼가 서쪽의 황제에게 아뢴다...” 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모꼬를 대사로, (쿠라쓰쿠리 씨족의) 후쿠리를 통역으로 딸려 보냈다.

당시 이들 일행과 함께 수나라에 보낸 사람들은, 학생 야마토 아야 씨족의 (아타히) 후쿠인, “나라” 씨족의 오사(譯語) 에마우, 아야히토(漢人) 겐리, 이마끼(新) 아야히토 오호쿠니, 학문 승 이마끼 아야히토 니치몬, 아야히토 샤아안, 아야히토 에온, 이마끼 아야히토 구와아사이 등 8명이었다.

즉, 수 나라에 최초로 파견한 8명의 학생들 중, 나라 씨족의 통역(譯語) 에마아 한 명을 제외하고는, 7명 모두가 아야 씨족의 사람들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 (뒤늦게 하츠세 왕 때 백제에서 도래한 아야 씨족을, 일찍이 호무다 왕 치세 때 도래한 아야 씨족과 구별을 하기 위해, 이마끼 아야 씨족이라 부른다. 그런데 “나라” 씨족 역시 백제에서 도래한 씨족이다.) 야마토 조정 내에서, 백제로부터 도래한 아야 씨족 사람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컸었는지 알 수 있다.

이들 일행 8명은, 그로부터 30여 년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수 나라가 망하고 당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돌아와서, 후에 타이카 카이신(大化改新)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삼국사기를 본다. 608년 봄 3월에 백제 무왕은 사신을 수 나라에 보내 조공을 하였다. 수 나라의 문림량, 배청 등이 왜국에 사신으로 오면서 백제의 남쪽 길을 경유하였다.

609년 4월, 쓰쿠시의 대재(大宰)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 “도흔 과 헤미를 우두머리로 한 10명의 승려와 속인 75인 등이 백제왕의 명령으로 남부 중국에 파견되었는데, 그 곳에 전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냥 되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 표류를 하다가 히고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이들 중 11명이 귀국하지 않고 체류할 것을 원하므로, 간고오지(元興寺)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610년, 고구려왕은 승려 담징과 법정을 보냈다. 담징은 5경을 알고, 채색과 종지와 먹을 만들 줄 알았다. 수력

으로 돌아가는 연자방아도 만들었는데, 연자방아가 만들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이다.

611년, 스이코 여왕은, 우다 들판에서, 사슴을 잡아 녹용을 자르는 사냥(약렵)을 했다. 그 날, 신하들의 옷 색깔은 각각 머리에 쓴 관의 색깔에 맞추고, 관을 장식하는 꽃을 머리에 꽂았다. 다이토쿠 등은 금을, 다이닌 등은 표범의 꼬리를, 다이라이 이하는 새의 꼬리를 함께 사용했다.

612년, 온몸에 백반이 있는 자가 백제에서 귀화 해왔다. 사람들은 그 물골이 끔찍해, 애초에는 바다 한가운데 섬 속에 그를 버려두려 했으나, 그가 산악의 모형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 하기에, 섬으로 쫓아 보내지 않고,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 중심의 산인) 수미산의 형상과 남 중국풍의 다리를 대궐의 남쪽 정원에 만들도록 했다.

남 중국에서 기악무(伎樂舞)를 배운 백제사람이 귀화했다. 그를 사쿠라우에 정착케 하고, 소년들을 모집하여 기악무를 가르쳐 주도록 했다. 이마키 아야 씨족의 사이몬 등 두 사람이 그 춤을 배워 전할 수 있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본다. 일찍이 영양왕(590-618년) 9년인 598년에, 수 나라의 문제(581-604년)는 수군과 육군 30만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다. 하지만 장마 때문에 군량 수송이 잘 안 되는 데다, 전염병이 크게 돌아, 전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수나라 군사들 10명 중 8, 9명은 살아가지 못했다. 영양왕 23년 (612년) 2월, 수 양제(604-618년)는 고구려를 치기위하여 113만 명의 육군과 그 두 배에 달하는 군량 수송자들을 거느리고 요하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동강으로 직행한 수군이 대패하여 철수를 했고, 요동성에대한 포위 공격도 성공하지 못했다.

수 양제는 우문술 등에게 따로 30만 대군을 주어 평양성 30리 밖까지 쳐들어가게 했으나, 이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를 하다가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 살수(청천강)에서 궤멸 당했다. 당시 우문술 휘하의 30만 대군 중 살아남은 자가 2천7백 명뿐이었다고 한다. 수 양제는 더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해 7월 25일에 퇴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해 613년, 수 양제는 또다시 대군을 동원하여 평양성, 신성, 요동성을

推古天皇 十九年夏五月 藥獵於菟田野...是日 諸臣服色 皆隨冠色 各着髻花 則大德小德並用金 大仁小仁用豹尾 大禮以下用鳥尾 下195-197

推古天皇 二十年夏五月...自百濟國有化來者其面身皆斑白 若有白癩者乎 惡其異於人 欲棄海中嶋...能構山岳之形 仍令構須彌山形及吳橋於南庭 時人號其人 曰路子工 亦名芝者摩呂 又百濟人味摩之歸化 曰學于吳 得伎樂舞 則安置櫻井 而集少年 令習伎樂舞 於是 眞野首弟子新漢濟文 二人習之傳其舞 此今大市首 辟田首等祖也 下197-199

推古天皇 二十一年冬十一月 作掖上池 畝傍池 和珥池 又自難波至京置大道 下199

推古天皇 二十二年夏五月五日 藥獵也 六月 遣犬上君御田鍬 矢田部造 闕名 於大唐 秋八月 大臣臥病爲大臣而男女并一千人出家 下201

推古天皇 二十三年秋九月 犬上君御田鍬 矢田部造 至自大唐百濟之使 則從犬上君 而來朝 十一月 饗百濟客 ... 高麗僧惠慈歸于國 下201

推古天皇 二十四年春三月 掖玖人三口歸化 夏五月 掖勾人七口來之 秋七月 亦掖玖人二十口來之 先後并三十人 皆安置於朴井 未及還皆死焉 秋七月 新羅遣奈末竹世士 貢佛像 下201

推古天皇 二十六年秋八月 高麗遣使貢方物 因以言 隋煬帝 興三十萬衆攻我 返之爲我所破 故貢獻俘虜貞公普通二人 及鼓吹弩拋石之類十物 并土物駱駝一匹 下201-203

공격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마침 6월에 군수품 수송책임 을 맡고 있던 예부상서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별이 오자, 수 양제는 급히 본국으로 귀환했다. 수 양제는 마지막으로 614년에 다시 한번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613년 11월, 우네비 못 등 세 개의 저수지를 만들었다. 또 나니하에서 미야꼬(京)에 이르는 넓은 길을 건설했다.

614년 5월 5일, 약력을 했다. 6월, 두 명의 사신을 수나라에 보냈다. 8월, 우마꼬 대신이 병이 들자, 그를 위해 남녀 1천명이 출가를 했다.

615년 9월, 수나라에 갔던 사신들이 돌아오는 편에 백제 사신들이 따라왔다. 11월, 백제의 객(客)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고구려 승 혜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616년 3월, 야쿠 사람 세 명이 귀화했다. 5월, 야쿠 사람 7명이 왔다. 7월, 역시 야쿠 사람 20명이 왔다. 이들 30명을 에노위에 정착시켰는데, 모두 죽어 버렸다. 7월, 신라가 나말(奈末) 죽세사를 보내 불상을 바쳤다.

618년 8월,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전하면서 말 했다: “수 양제가 30만의 무리를 보내 우리를 공격했으나 오히려 우리에게 격파되었습니다. 그때 잡은 포로 두 명, 북, 피리, 활, 돌을 쏘는 기구(拋石) 등 10점, 아울러 토산물과 낙타 한 필을 보냅니다.”

## (8) 당나라의 등장

일찍이 589년에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구려와 대규모의 전쟁을 벌였으나, 번번이 참패했다.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마침내는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 지방의 관료와 지주들이 할거하게 되었다. 618년에 수 양제가 측근에게 암살되자, 태원의 유수 이연은 당 나라를 세웠다. 당 고조(618-626년)는 고구려 영류왕(619-642년)에게, 수 나라 말기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피차 적지에 남겨진 병사와 백성들의 수가 많으니 이들을 찾아

모아서 상호간 교환을 할 것을 제안했다. 영류왕이 고구려 안에 남아있는 중국 사람들을 찾아 모아서, 622년에 당 나라로 돌려보내준 한족의 수가 만여 명에 달했다한다.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620년 10월, 히노쿠마 능의 상층부를 자갈로 덮고, 능의 외곽에는 흙을 쌓아 산을 만들었다. 또 모든 씨족들에게 토산 위에다 큰 기둥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야마토 아야씨족의 사카노우에 아타히가 세워 놓은 기둥이 제일 높았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큰 기둥” 아타히 라고 불렀다.

그 해, 태자는 우마코 대신과 의논을 해서, 스메라미코토 후미(天皇記)와 쿠니쓰 후미(國記)를 기록하게 하고, 또 오미, 무라지, 반조, 국조, 180베와 오호미타카라(公民) 등의 모토쓰 후미(本記)를 기록하게 했다. 7세기 초에 기록된 이들 천황기, 국기, 본기 등은, 50여 년 후에 덴무왕(673-686년)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 기초 사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621년 2월, 쇼오토쿠 태자가 이카루가 궁에서 죽었다. 고구려 승 혜자는 크게 슬퍼하며, 승려들을 청해, 죽은 태자를 위해 불공을 드렸다. 그 날, 혜자는 친히 불경을 설하면서 말 했다: “야마토 쿠니(日本國)에 성인이 있으니, 그가 바로 태자였다. 하늘은 그에게 성현의 덕을 주어 야마토 땅에 낳게 했다. 그는 부처, 불법, 승려 등 삼보를 공경하고,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다. 내 비록 이국 사람이지만 태자가 없는 이 세상에 어찌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도 내년 2월 5일에 반드시 죽어, 태자를 부처님이 사시는 정토에서 만나, 함께 중생을 교화하리라.”

과연 다음해 바로 그 날 혜자가 죽으니, 사람들이 쇼오토쿠 태자 뿐 아니라 혜자 역시 성인이라 말했다. 그 해, 신라가 나말 이미매를 보내 최초로 표(表)를 전했다.

일본 사학자들은 쇼오토쿠 태자의 섭정을 전후로 한 시기에 아스카 땅에서 피어난 문화를 아스카(飛鳥)문화라 한다.

622년 7월, 신라는 나말 지세이를 대사로 보내면서, 불상 1개, 금탑과 사리, 불문에 들어가 승려로서 계를 받을

推古天皇 二十八年冬十月 以砂礫葺檜隈陵上 則域外積土成山 仍每氏科之 建大柱於土山上 時倭漢坂上直樹柱 勝之太高 故時人號之曰大柱直也 十二月 ... 是歲 皇太子嶋大臣共議之 錄天皇記及國記 臣連伴造國造百八十部并公民等本記 下203

推古天皇 二十九年春二月 半夜廐戶豐聰耳皇子命 薨于斑鳩宮 ... 高麗僧慧慈 聞上宮皇太子薨 以大悲之 爲皇太子 請僧而設齋 仍親說經之日 誓願曰 於日本國有聖人 曰上宮豐聰耳皇子 固天攸縱 以玄聖之德 生日本之國 苞貫三統 纂先聖之宏猷 恭敬三寶 救黎元之厄是實大聖也 今太子既薨之 我雖異國 心在斷金 其獨生之 何益矣我以來年二月五日必死 因以遇上宮太子於淨土 以共化衆生 於是慧慈當于期日而死之 是以 時人之彼此共言 其獨非上宮太子之聖 慧慈亦聖也 是歲 新羅遣奈末伊彌買朝貢 仍以表書奏使旨 凡新羅上表 蓋始起于此時歟 下205

推古天皇 三十一年秋七月 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 ... 仍貢佛像一具及金塔并舍利 且大觀頂幡一具 小幡十二條 卽佛像居於葛野奏寺 以餘舍利金塔觀頂幡等 皆納于四天王寺 是時 大唐學問者僧惠齋惠光及醫惠日福因等 並從智洗爾等來之 於是 惠日等共奏聞曰 留于唐國學者 皆學以成業 應喚 且其大唐國者 法式備定之珍國也 常須達 是歲 新羅伐任那 任那附新羅 ... 中臣連國曰 任那是元我內官家 今新羅人伐而有之 請戒戎旅 征伐新羅 以取任那 附百濟 寧非益有于新羅乎 田中臣曰 不然 百濟是多反覆之國 道路之間尚詐之 凡彼所請皆非之 故不可附百濟 則不果征焉 下205-207

推古天皇 三十二年夏四月 有一僧執斧毆祖父 時天皇聞之召大臣 詔之曰 夫出家者頓歸三寶 具懷戒法 何無懺忌 輒犯惡逆 今朕聞 有僧以毆祖父 故悉聚諸寺僧尼 以推問之 若事實者 重罪之 於是 集諸僧尼而推之 則惡逆僧及諸僧尼 並將罪 於是 百濟觀勒僧 表上以言 夫佛法自西國至于漢 經三百歲 乃傳之至於百濟國 而僅一百年矣 然我王聞日本天皇之賢哲 而貢上佛像及內典 未滿百歲 故當今時 以僧尼未習法律 輒犯惡逆 是以 諸僧尼惶懼 以不知所如 仰願 其除惡逆者以外僧尼 悉赦而勿罪 是大功德也 天皇乃聽之 ... 詔曰 夫道人尚犯法 何以誨俗人 故自今已後 任僧正僧都仍應檢校僧尼 ... 以觀勒僧爲僧正 以鞍部德積爲僧都 卽日 以阿曇連 闕名 爲法頭 秋九月 校寺及僧尼 具錄其寺所造之緣 亦僧尼入道之緣

때 사용하는 커다란 깃발 1개, 작은 깃발 12개 등을 전했다. 불상은 (카도노 의) 하타 씨족의 절에 안치되었다. 금탑, 사리 등 다른 물건들은 시텐노오지(四天王寺)에 바쳐졌다.

당시, 당나라의 학승 혜재와 혜광, 의사 혜일과 복인 등이 지세이 일행을 따라서 왔었다. 혜일 등은 스이코 여왕에게, 일직이 야마토 조정이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학업이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불러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나라는 법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왕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622년, 신라는 미마나(任那)를 정벌해서 병합해 버렸다. (본가야는 이미 532년에, 대가야는 562년에 각각 신라에게 정복되었었다.) 나카토미 씨족의 무라지 쿠니는 말했다: “미마나는 원래부터 우리의 우치쓰 미야케(內官家)였는데 이제 신라가 정벌해서 차지해 버렸습니다. 원컨대 신라를 정벌해 미마나를 빼앗아 백제에 소속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타나카 오미는, 구태여 신라를 정벌하고 미마나를 빼앗아 백제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반대를 했다.

### (9) 불교의 제도화

623년 4월, 승려 한 명이 도끼로 자신의 조부를 구타했다. 스이코 여왕은 그 말을 듣자, 즉시 모든 절의 남녀 승려들을 모아 조사를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색출하여 벌을 주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백제 승 관륙이 표를 올려 말 했다: “불법은 서쪽 나라로부터 300년 전에 한나라에 전해 졌고, 100여 년 전에 백제에 전해 졌습니다. 한데 야마토 땅에 불법이 전해 진 것은 100년도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남녀 승려들이 불 법률(계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쉽사리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녀 승려들은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주 불안해 합니다. 원컨대 이번에 악한 짓을 저지른 당사자 이외에는 그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왕은 관륙의 말을 듣고, 모두

용서해 주었다.

스이코 여왕은 조칙을 내려 소오자우(僧正)와 소오즈(僧都)를 임명하여, 남녀 승려들을 감시하고 행실을 바로잡아 주도록 했다. 백제 승 관륙이 소오자우가 되었고, (쿠라쓰쿠리 씨족의) 토쿠샤쿠가 소오즈로 임명되었다. 또 성명 미상의 (아즈미 씨족의) 무라지를 호오즈(法頭)로 임명했다.

623년 9월, 각 사찰과 남녀 승려들을 검열해서, 각각의 절을 짓게 된 내력과 승려들이 출가 입도 하게 된 사연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했다. 당시, 절은 46개 소, 남자 승려는 816명, 그리고 여승은 569명이 있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 된 것은 1세기 후한 시대였다. 당시부터 600여 년 전인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동진에서 호승 마라난타가 백제에 와서 불교를 전한 것은 당시부터 240여 년 전인 (침류왕 원년) 384년이다. 이차돈의 순교로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 된 것이 528년이고, 백제로부터 야마토 조정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이 538년이다. 백제 승 관륙이 300년, 100년 등으로 말 한 것은, 정확성보다도, 그저 알아듣기 편하게 말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10) 카즈라키 현의 소가 씨족

쇼오토쿠 태자가 죽은 지 2년이 넘었다. 623년 10월, 소가 씨족의 우마꼬 대신은, 성명 미상의 (아즈미 씨족의) 무라지 등을 여왕에게 보내 말을 전 했다: “카즈라키 현은 원래 신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그 현의 이름을 따서 신의 성명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신이 그 현을 영구히 가질 수 있도록, 신에게 봉해 준 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이코 여왕은 조서를 내려 말 했다: “나는 소가(蘇何) 집안 출신이다. 대신은 나의 큰외삼촌이다. 따라서 대신이 밤에 말을 하면, 날이 새기 전에 실행이 되고, 낮에 말을 하면 밤이 되기 전에 실현이 된다. 대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이제 내 당대에 와서 그 현을

及度之年月日也 當是時 有寺四十六所 僧八百十六人 尼五百六十九人 并一千三百八十五人 下209-211

推古天皇 三十二年冬十月 大臣遣阿曇連 闕名 阿倍臣摩侶 二臣 令奏于天皇曰 葛城縣者 元臣之本居 故因其縣爲姓名 是以冀之 常得其縣 以欲爲臣之封縣 於是 天皇詔曰 今朕則自蘇何出之 大臣亦爲朕舅也 故大臣之言 夜言矣夜不明 日言矣 日不晚 何辭不用 然今朕之世 頓失是縣 後君曰 愚癡婦人 臨天下以頓亡其縣 豈獨朕不賢耶 大臣亦不忠 是後葉之惡名 則不聽 下211

推古天皇 三十三年春正月 高麗王貢僧惠灌 仍任僧正 下211

三國史記 卷 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二十年 春正月 遣大臣入唐朝貢 高祖嘉其誠款 遣使就冊爲帶方郡王百濟王 三73

推古天皇 三十四年夏五月 大臣薨 仍葬于桃原墓 大臣則稻目宿禰之子也 性有武略 亦有辨才 以恭敬三寶 家於飛鳥河之傍 乃庭中開小池 仍興小嶋於池中 故時人曰嶋大臣 ... 是歲 自三月至七月 霖雨 天下大飢 之 老者噉草根 而死于道垂 幼者含乳 以母子共死 又強盜竊盜 並大起 之 不可止 下213

推古天皇 三十六年春二月 天皇臥病...秋九月...先是 天皇遺詔於群臣 曰 此年五穀不登 百姓大飢 其爲朕興陵以勿厚葬 便宜葬于竹田皇子之陵 下213-215

잃는다면, 훗날 임금들이, 우매한 부인이 천하를 다스리면서 그 현을 상실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를 보고 현명치 못하다고 할 뿐 아니라, 대신 역시 충신이 아니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서는, 여왕은 우마코 대신의 요청을 거절했다.

624년 정월, 고구려 영류왕은 승려 혜관을 보냈다. 그는 소오자우로 임명되었다.

삼국사기를 본다. 624년 봄 정월에 백제 무왕이 당 나라에 대신을 보내어 조공하니, 당 고조는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사신을 보내 무왕을 대방군왕 백제왕으로 책봉하였다.

626년 5월, 우마코 대신이 죽었다. 그는 소가 씨족의 이aname 스쿠네의 아들로써, 무예와 지략이 뛰어났었고 말재주가 있었으며, 불, 법, 승, 삼보를 공경했었다. 그의 집은 아스카 강가에 있었다. 그는 정원 한 가운데 못을 파고 섬을 만들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시마(嶋) 대신이라 불렀다. 한국 고어에서 섬은 “섬”이라 했다. 일본열도에 와서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게 되는 현상을 본다.

#### (11) 스이코 여왕의 병사

그 해에는 3월부터 7월까지 계속 비가 내렸다.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 어른들은 풀뿌리를 캐먹다가 길가에 쓰러져 죽었다. 갓난아기들은 나오지도 않는 젖을 빨다가 모자가 함께 죽었다. 강도와 절도들이 창궐했으나 막을 길이 없었다.

628년 2월, 스이코 여왕이 병들어 누었다. 3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니, 능을 축조하며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려하지 말고, 자신이 낳은 아들인 타케다 왕자의 능에 그냥 합장을 해 달라는 유언을 하고 여왕이 승하였다.

7년 전, 621년에 쇼오토쿠 태자가 죽었을 때, 새삼 태자를 선정하지 않았었다. 공식적인 태자가 없는 상태에서

628년에 스이코 여왕마저 서거하자, 여러 왕자들 가운데 과연 누가 왕위를 계승 할 것인가를 놓고, 온 조정이 혼란 상태에 빠졌다. 결국은 (우마코의 아들인) 소가 씨족의 에미시 대신의 의도대로 (스이코 여왕의 이복 오라버니인) 비다쓰 왕의 손자가 629년에 왕위에 올라, [20대] 쇼메이 왕이 되었다.

630년 정월, 쇼메이 왕은 비다쓰 왕의 증손녀이며, 자신의 조카인 왕녀를 왕후로 맞이했다. 그녀가 낳은 맏아들 카즈라키 왕자가 후에 [24대] 텐지 왕이 되고, 둘째 아들 오호시아마 왕자가 후에 [26대] 텐무 왕이 된다. 쇼메이 왕의 왕후가 된 이 여인이 바로 [21대] 코오교쿠 여왕이며, 또 동시에 [23대] 사이메이 여왕이 되는 것이다. 왕후의 지위에서 두 번이나 왕위에 오르는 아주 특이한 사례이다.

630년 3월, 고구려 대사 연자발 과 백제 대사 (은솔) 소자 등이 함께 왔다. 8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10월, 왕궁을 아스카로 옮겼다. 그 해에, 나니하의 오호코호리 (大郡)와 삼한(백제, 신라, 고구려)의 객관을 수리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본다. 영류왕(618-642년) 14년(631년), 동북방의 부여성 으로부터 서남쪽의 발해에 이르기까지 1000여리에 이르는 장성이 착공한지 16년 만에 드디어 준공되었다. 수 양제의 3차에 걸친 침공을 겪고서, 616년에 착공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일찍이 618년에 영양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연개소문은 당시에 이 장성의 축조를 감독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632년 8월, 당나라는 야마토 조정이 보낸 사신을 호송하며 고표인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 일행이 모두 쓰시마에 도착했다. 학문승 2인과 신라의 송사(送使) 등이 따라왔다. 당나라 사신들이 나니하에 정박하자, 오호토모 씨족 사람을 보내 강 어구에서 영접토록 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한 32척의 배가 북과 피리소리 속에 기치를 나부끼며 환영했다. 영빈관으로 인도를 한 후, 신주(神酒)를 보내 주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본다. 백제 무왕(600-641년)은, 632년 정월에, 맏아들 의자를 태자로 봉하였다. 634년 2월에 왕흥사가 완성되었다. 왕흥사는 강물에 접해있고, 그 채

舒明天皇 即位前紀 息長足日廣額天皇(舒明) 淳中倉太珠敷天皇(敏達)孫. 母. 豐御食炊屋姬天皇(推古) 二十九年 皇太子豐聰耳尊薨而未立皇太子 以三十六年三月 天皇崩 九月 葬禮畢之 嗣位未定 當是時 蘇我蝦夷臣爲大臣 獨欲定嗣位 下217

舒明天皇 元年春正月 大臣及群卿共以天皇之璽印 獻於田村皇子 下227

舒明天皇 二年春正月 立寶皇女爲皇后 后生二男一女 一曰葛城皇子 近江大津宮御宇天皇 二曰間人皇女 三曰大海皇子 淨御原宮御宇天皇 夫人蘇我嶋大臣女...三月 高麗大使宴子拔小使若德 百濟大使恩率素子小使德率武德 共朝貢 秋八月 以大仁犬上君三田耜 大仁藥師惠日 遣於大唐...冬十月 天皇遷於飛鳥岡傍 是謂岡本宮 是歲 改修難波大郡及三韓館 下227-229

舒明天皇 三年春三月 百濟王義慈入王子豐章爲質 下229

舒明天皇 四年秋八月 大唐遣高表仁 送三田耜 共泊于帶馬 是時 學問僧靈雲僧旻及勝鳥養 新羅送使等從之 冬十月 唐國使人高表仁等 泊于難波津 則遣大伴連馬養 迎於江口 船三十二艘及鼓吹旗幟 皆具整飾...引客等入於館 即日 給神酒 下229-231

三國史記 卷 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三十三年 春正月 封元



子義慈爲太子... 三十五年 春二月  
王興寺成 其寺臨水 彩飾壯麗 王每  
乘舟 入寺行香 三月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 四岸植以楊柳 水中  
築島嶼 擬方丈仙山 三74

舒明天皇 七年夏六月 百濟遣達率  
柔等朝貢 秋七月 饗百濟客於朝 下  
231

舒明天皇 八年春三月 悉劾姦采女  
者 皆罪之 是時 三輪君小鷦鷯 苦  
其推鞠 刺頸而死... 秋七月 大派王  
謂豐浦大臣曰 群卿及百寮 朝參已  
懈 自今以後 卯始朝之 已後退之  
因以鐘爲節 然大臣不從 下231

三國史記 卷 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三十七年 春三月 王率  
左右臣寮 遊燕於泗泚河北浦 兩岸  
奇巖怪石錯立 間以奇花異草如畫圖  
王飲酒極歡 鼓琴自歌 從者屢舞 時  
人謂其地爲大王浦... 六月 旱 秋九  
月 燕 臣於望海樓 三74

舒明天皇 九年春三月...蝦夷叛以不  
朝 卽拜大仁上毛野君形名 爲將軍  
命討 還爲蝦夷見敗...爰方名君妻歎  
曰 慷哉 爲蝦夷將見殺...而親佩夫  
之劔 張十弓 令女人數十俾鳴弦 旣  
而夫更起之 取仗而進之...擊蝦夷大  
敗 以悉盧 下233

색과 꾸밈이 장려하였다. 왕은 매년 배를 타고 그 절에 가서, 향을 피워 올렸다. 4년 전인 630년에 수리와 증축을 끝마친 사비(泗泚, 扶餘)의 왕궁 남쪽에 못을 파고 물을 20여리나 끌어들었다. 못 주위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속에 섬을 만들어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선산(方丈仙山) 모습을 흉내 내었다. 일본서기로 돌아간다.

635년 6월, 백제는 달솔 유 등을 보냈다. 7월, 조정에서 백제 방문객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636년 3월, 왕궁의 시녀들인 우네메를 범한 자들을 모두 처벌했다. 당시, 어떤 자는 고문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다. 7월 1일, 왕자 하나가 에미시 대신에게 말했다: “요즘 조정 백관들이 모두 해이 해 져서, 조정에 제때에 출석을 안 하는데, 이제부터는 해가 뜨기 전(6시 경)에 조정에 나왔다가, 오전 중(10시 이후)에 퇴근토록 종을 쳐서 감독을 하시오.” 하지만 에미시 대신은 이 왕자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

삼국사기를 본다. 636년 3월, 백제 무왕은 좌우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비강 북쪽 포구에서 배를 타고 주연을 베풀었다. 강 양쪽 벽에는 기암괴석들이 늘어 선데 다가, 간간이 희귀한 화초들이 피어있어, 마치 그림과 같았다. 왕은 술을 마시고 즐거워, 북을 치고 거문고를 타며 스스로 노래를 불렀고, 시종들도 여러 차례 춤을 추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곳을 대왕포라고 불렀다. 그 해 8월에도, 무왕은 망해루에서 군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637년, 에미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카미쓰케노 씨족의 키미) 카타나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토벌하게 했다. 카타나는 에미시와의 전투에서 패하여 진지로 도망을 해 왔다. 이 꼴을 보고 카타나의 처는, 남편의 검을 빼앗아 차고, 열개의 활을 펼쳐 (남편들을 따라 전쟁터에 와 있는) 여인들에게 활시위를 올리게 하며, 전진해 나아갔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도 무기를 들고 따라 나섰다. 마침내 에미시들을 쳐부수고 모두 포로로 만들었다.

부인이 남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단순히 남편의 수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못난 남편 대신 싸움까지 한다는

얘기다. 부녀자가 남편을 따라, 먼 전쟁터에 함께 나가는 몽골 족의 전통보다 한발 앞선 것 같다.

1221년 봄, 징기스칸이 중앙아시아와 동부 페르시아를 몸소 정벌할 때, 아들 툴루이를 시켜 니샤푸르를 공격하게 했다. 성벽을 공격하던 중, 툴루이의 누이동생 남편이 전사했다. 니샤푸르가 함락되자, 툴루이는 전쟁터에 따라와 있던 누이동생에게,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점령군 선두에서 입성토록 한 다음, 그녀의 호위병들이 그녀 눈앞에서 성안의 남녀노소는 물론 개와 고양이까지 모조리 잡아 죽이게 했다.

## (12) 쿠다라 강가의 백제궁으로

639년 7월, 조메이 왕은 대규모의 궁전과 사찰을 축조하도록 명했다. 궁전은 쿠다라(百濟) 강가에 자리를 잡았다. 백제천은 오늘날 소가천(叢我川)이라 부른다. 서쪽 백성들이 궁전을 짓고, 동쪽 백성들이 절을 만들고, 후미(書)의 아타히 아가타가 건축 책임자(大匠)가 되었다. 9월, 당나라에 공부를 하러 갔었던 학승 에온과 에운이, 신라 송사를 따라서 입경(入京) 했다. 11월, 신라 객은 조정에서 향응을 대접받고 관위 1급을 받았다. 12월, 쿠다라 강변에 구중 탑을 세웠다.

640년 4월, 크게 불공을 올리면서, 승려 에온을 청해 무량수경을 설하게 했다. 10월, 당나라에 공부하러 갔던 학문승 들과 학생(學生)인 아야 씨족의 겐리가 신라를 거쳐서 돌아 왔다. 백제와 신라 사신들이 함께 왔는데, 이들은 모두 벼슬 1급을 하사받았다. 조메이는 아스카의 왕궁으로부터, 신축한 백제궁으로 이사를 갔다.

삼국사기를 본다. 640년 2월, 백제 무왕은 자신의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면서 국학에 입학 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641년 3월, 무왕이 서거했다. 당에 사신을 보내 알리니, 당 태종(626-649년)이 현무 문에서 애도식을 거행하고, 조서를 내려, 무왕에게 광록대부를 추증 했다.

641년 10월, 조메이 왕이 백제궁 에서 서거했다. 북

舒明天皇 十一年秋七月 詔曰 今年造作大宮及大寺 則以百濟川側爲宮處 是以 西民造宮 東民作寺 便以書直縣爲大匠 秋九月 大唐學問僧惠隱惠雲 從新羅送使入京 冬十一月 饗新羅客於朝 因給冠位一級 十二月... 於百濟川側 建九重塔 下 233-23

舒明天皇 十二年夏五月 大設齋 因以 請惠隱僧令說無量壽經 冬十月 大唐學問僧清安 學生高向漢人玄理 傳新羅而至之 仍百濟新羅朝貢之使 共從來之 則各賜爵一級 是月 徙於百濟宮 下235

三國史記 卷 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三十七年 春二月 遣子弟於唐 請入國學 四十二年 春三月 王薨 諡曰武 使者入唐 素服奉表曰 君外臣扶餘璋卒 帝舉哀玄武門 ... 贈光祿大夫 三74-75

舒明天皇 十三年冬十月 天皇崩于百濟宮... 殯於宮北 是謂百濟大殯 下235

쪽 궁에 빈소를 설치했는데, 이를 쿠다라 대빈(百濟大殯)이라 불렀다.

Chapter 16 begins at 415.